

# AIC 제11차 WG회의에 참석하고

신경희/국제협력국

극동아시아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아시아 ISDN협의회(AIC:Asia ISDN Council)의 제11차 Working Group 회의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열렸다.

각 회원들로 하여금 통신에 관련된 중에서도 특히 ISDN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기통신 산업 시설의 발전은 물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AIC는 1988년 4월에 구성되어 1993년까지 5년 동안만 활동을 하기로 한 한시적 기구였으나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총회에서 그 기간을 5년 연장, 98년까지 활동을 지속키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회기 연장 후 첫번째 WG회의인 셈

이다.

지난 5년동안 거의 같은 사람들이 꾸준히 회의에 참석했던 탓인지 사뭇 화기애애한 분위기이면서도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지켜보며 국내에서도 관련 업무자의 지속적인 참여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느꼈고 동시에 점차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으므로 한편 다행한 생각이 든다.

이에 관련 실무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ISDN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AIC의 활동을 이번 11차 WG회의 참가를 계기로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회의의 개요

지난해 서울에서 제5차 총회 및 10차 WG(Working Group)회의가 열린데 이어, 제11차 회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연해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ISDN과 관련된 통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각종 응용기술 등에 관한 정보 교환과 궁극적으로 이들 지역의 통신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조직된 AIC회의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회기를 5년 연장 2차 회기를 맞아

더욱 더 큰 열의와 의욕을 엿보게 한 회의라 할 수 있다.

이번 마닐라 회의에는 10개 국가로부터 126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최국 필리핀을 제외하고 일본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이 15명 우리나라가 그 다음인 13명이 참석하였다. 태국이 예년에 비해 비교적 많이 참석한 것은 차기 회의 주최국으로서의 관심과 열의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규 회원국 가운데에는 인도네시아 7명, 말레이시아 4명, 싱가포르 2명, 필리핀 35명이었으며 준회원국으로서 중국이 2명,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특히 EIUF (European ISDN User's Forum)을 대표하여 벨기에에서 2명이 참석하여 유럽의 ISDN진척 정도와 ETSI에 의해 이루어지는 표준화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EIUF와 AIC와의 협력 관계 유지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본 한국의 회의 참석자 현황은 한국통신(2), 체신부(1), 금성정보통신(1), 대우통신(3), 삼성전자(1), 한국이동통신(2), 한국전자통신연구소(2), 한국통신기술협회(1) 등 총 13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발표된 논문은 총 25편이었으며, 기고서는 10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논문 8편과 기고서 2편 등 총 10편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과 기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ntergration of Packet Service in TDX-1B/ISDN via ISDN Packet Interface System (한국통신)
- The Demand Estimation and Network

Enhancement of ISDN in Korea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Implementation of S-interface Phone with various Features in SEC (삼성전자)
- A Study on the CSTA System Architecture Design (금성정보통신)
- ISDN over Satellite : Applications and their Architectures (금성정보통신)
- A Study on the MRVT of OMAP Function in CCS (대우통신)
- Packet Communication in ISDN and Implementation of ISDN Packet Terminals (금성정보통신)
- Restructure of ITU and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National ISDN Committee for AIC in Korea (체신부)
- The Publications of ISDN News Letter (한국통신)
- Preperation for Providing International ISDN Services (한국통신)

## 회의의 내용

회의 일정 첫날인 5월 24일에는 각국 정부 대표 및 Working Group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의 진행상황 등과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한 Coordination Meeting이 열렸으며, 둘째날인 5월 25일에 개회식과 함께 지난해 서울 10차 WG회의시 발간된 "ISDN 기본 기술 가이드북" 2차판을 교재로 하여 필리핀의 운송통신부와 통신 사업자를 대표한 전문 실무진이 강사로 나와 강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ISDN 기본 기술 가이드북은 'ISDN이란 무엇인가?' 라는 기초 주제로부터 'ISDN 사용자 망

접속', 'ISDN을 위한 교환, 전송시스템' 그리고 '미래의 ISDN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초에서부터 전문주제까지 단계별 10개의 장으로 구별되어 있다.

회의 삼일째는 WG1과 WG2의 Joint Meeting이 열려 각각의 WG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토의될 문제점을 선정하였으며, 앞서 문서로써 이미 각 회원국에 배포된 NIUF(North America ISDN User's Forum)과의 공식 협력관계 체결이 AIC 회원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한편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도네시아와 한국

으로부터 ISDN National Committee 구성 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벨기에의 Mr. Liebscher로부터 EIUF(European ISDN User's Forum)에 관한 현 상황에 대한 발표를 듣고, AIC 사무총장은 NIUF와의 예를 들며 EIUF와의 협력관계 체결을 희망, 공식적인 서한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WG1과 WG2의 합동회의에서 WG1의 연구주제는 차기 회의에서 결론을 유도하기로 하고 ISDN 서비스와 응용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WG2의 주요과제 5가지를 이번 회의부터 다루기로 하였다.

본 회의라 할 수 있는 실무자 그룹 회의인 WG1회의가 26일 열려 ISDN기초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 발표와 이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WG1회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주환박사를 의장으로 하여 부의장에는 싱가포르 Ms. Lian Bee Leng, 태국의 Mr. Silpachai Bijayendrayodhim, 그리고 일본의 Mr. Yano, Atsushi 등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2차 회기를 맞은 AIC의 새로운 활동으로 WG1에서 ISDN 기초기술 가이드북과 같은 포맷으로 "ISDN Software Technology Guidebook"를 작성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ISDN 기본기술 가이드북의 개정을 위한 활동안에 대해서 WG1에서 승인을 하여 이번 회기동안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와 ISDN 개발을 추가로 1장을 추가시키거나 부록으로 넣기로 하였다.

또한 다른 표준화 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논문 초청발표를 하자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국가간 ISDN접속을 위한 상호방식, 단말기 등에 관한 것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태국으로부터 ISDN training 과정을 개설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의 훈련과정이나 비용의 부담이 일본쪽으로 편중되는 듯한 분위기에

서 별다른 결정없이 검토만 되었다.

2차 회기동안 WG1의 활동분야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차기 회의에서 좀 더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관한 기고서를 제출할 것을 회원국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국에서 채택한 ISDN 표준과 이의 표준화에 관한 "협력각서"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나 여러가지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 추후 관리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며 WG 차원에서는 표준화와 그리고 다른 기술적 문제에 관한 정보 교환만을 중점 취급기로 하였다.

다음날 열린 WG2 회의는 Mr. Ueda, Toshiki의장과 Mr. Arsenio Peleo, Jr.와 한국통신의 이승복 부장을 부의장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WG2는 ISDN 기술에 근거한 응용, 계획, 개발, 서비스의 이용, 표준화 등에 관한 것을 주로 연구하는데 이어 관련된 5가지 테마를 2차 회기년의 주 연구과제로 정했다. 각각의 연구과제는

- Question 1 : Plans and Policies on Telecommunication
- Question 2 : Corporate Communications
- Question 3 : ISDN Application Models
- Question 4 : ISDN User Forums
- Question 5 : ISDN Pilot Use 등이다.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기고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의를 펼쳤으며, Question 4와 Q.5에 관련된 논문은 발표된 것이 없었으나 차기 회의에는 EIUF나 NIUF(North America ISDN User's Forum)로부터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한편 회의 마지막 날 폐회사를 통해 Mr. Iijima, Sachio 사무총장은 훌륭한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과 회의 준비와 진행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AIC회의의 이런 움직임과 노력이 아시아 지역의 통신발전은 물론 전세계의 통신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 회의 참석 소감

올해에 담당업무가 바뀌게 되어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였으나 구성원이 많지 않은 대규모 회의가 아닌 점과 지난 5년동안 AIC회의라는 이름하에 같은 담당자들이 꾸준히 참석하여 온 점, 통신분야중에서도 ISDN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주제를 좁힌 것 등이 7개국 내지 10개국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임에도 딱딱함이나 권위의식, 팽팽한 긴장감 등은 다소 적었던 것으로 느껴진다.

장소의 협소함 때문인지 의장단석과 정부 대표석을 제외한 플로어에 비치된 몇개 안되는 마이크는 거의 쓸 새 없이 각국의 참석자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갖게 하기에 바빴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활동이 두드러져 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우위에 있음을 실감케 했으며,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는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지만 토론에 매우 적극적인데 비해 비교적 많은

인원과 다량의 논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비되어 국제회의에 임하는 자세와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하였다.

한편 회의 개최국인 필리핀의 운송통신부 직원들뿐 아니라 50여개가 넘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참여한 많은 운영직원들의 철저한 회의 준비, 진행을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어 흐뭇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AIC 사무국의 일본인 직원들의 회의 자료 준비와 회의 결과물의 빠른 배포와 처리 등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을 정도였으며, 같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협회 직원으로서 회의를 많이 접하고 또 준비, 참석하게 될 입장에서 그냥 흘러버릴 수 없는 좋은 본보기요 교훈이었다 생각된다.

